

혁신도약 다짐한 '산업단지 기업인의 날' 행사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등 1천여 명 참석



1 김기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장, 황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고창희 대불경협회장(왼쪽부터)
2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왼쪽), 김용백 (주)광덕에이엔티 대표(오른쪽)
3 호안 마르티 스페인 카탈루냐 주정부 무역청 부국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 산단공)과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회장 김기원, 산경련)는 10월 23일 코엑스에서 '2018 산업단지 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일자리성장과 산업 및 기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혁신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인과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윤상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국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산업단지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 상생화합·일자리혁신 △ 산업·기술혁신 △ 산업입지혁신을 통한 산업단지 혁신도약을 국민과 함께 일구어 나간다는 의지를 다졌다.

산업단지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기업인·근로자 등 총 117명이 산업발전 유공자로 선정됐다.

동탑산업훈장은 대아산업 고창희 대표이사, 대통령표창은 아쿠아픽 이계우 대표이사사와 태호 김영주 대표이사가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재원산업 심성원 대표이사, 협신하이드로릭 노병무 대표이사, 한라MS 김영구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스페인 카탈루냐주정부 무역청 호안 마르티 부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스페인 카탈루냐의 클러스터 발전상을 소개하면서 "클러스터가 산학연관이 융·복합하는 산업 혁신생태계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민과 관의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협력과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행사로는 산업·기술혁신 콘퍼런스와 산업입지혁신을 주제로 한 산업단지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산업·기술혁신 콘퍼런스는 국가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산업단지 클러스터 방향과 스마트 산업단지구축 방향 등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산업입지혁신 콘퍼런스는 △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단지의 변화 방향과 과제 △ 산업단지 중심의 균형발전·지역혁신 방안 세션으로 열렸다. 각각 세부 주제별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돼 산업단지 혁신도약을 위한 현안과 과제를 놓고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산경련의 김기원 회장은 "올해 산업단지 기업인의 날은 대한민국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산업단지의 공적과 가치를 되새기고 산업단지 기업인과 근로가족의 역량과 의지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단공의 황규연 이사장은 "국민과 입주기업인의 변화와 희망 의지를 담아 산업단지는 다시금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공간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단공은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